박원자의 母情佛心 21 마가 스님의 어머니



▶ 한줄 요약

마가 스님의 아버지는 스님이 뱃속에 있을 때, 다른 여자에게 갔다. 이에 대한 원망으로 마가 스님은 청소년기 방황을 했고, 불교를 만나 수행자로 다시 태어났다. 스님은 어머니를 모시면서 자신의 명상 브랜드를 만들 수 있었고, 정화 스님과 수행하며 부친에 대한 원망도 자비심으로 승화시켰다.

“미안하고 사랑한다”… 母子 아름다운 동행



그림 · 박구원

환갑의 아들 스님이 어머니 보살에게 수시로 염불하듯 말씀드린다. “미안합니다.”

어느덧 구순을 넘겨 허리 굽은 어머니가 두 손을 모으고 화답한다. “고맙습니다.”

초로의 아들 스님이 어머니가 전부였던 아이 때처럼 고백한다. “사랑합니다.”

스마트 법당 미고사를 창건한 마가 스님의 일상이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의 앞 세 글자를 따서 미고사라 이름지었다. 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는 마가 스님은 최근에 어머니에게 수계를 해드렸다. 스님들이 열반할 때 입는 것과 똑같은 수의도 준비해두었다. 돌아가시면 다음 생엔 출가수행자가 되길 발원하며 바로 출가 의식을 겸해 염해드리려고 한다. 어머니는 아들 스님에게 배운 〈천수경〉을 외우시며 기도하고, 틈만 나면 아들 스님과 ‘아미타불’을 왼다.

한때 미워하며 원망하기도 했던 어머니는 삶의 고비마다 수행자로서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세워준 선지식이었고 오늘날의 스님을 있게 한 관세음보살이다. 스님의 삶은 어머니를 모셔야겠다는 마음을 낸 순간부터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출가하면 부모를 멀리해야 하는 승가의 풍토에서 왜 어머니를 모셔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을까.

사연은 이렇다. 출가하고 십 수 년 뒤, 스님은 고향의 지인을 통해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스무 살쯤 집을 나와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어머니의 소식이었다. 고향으로 가는 길 위에서 어머니의 삶을 떠올렸다. 만감이 교차했다.

사남매를 낳았던 어머니는 막내아들이 뱃속에 있을 때 지아비가 떠나 보내야했다. 새로운 인연을 찾아 집을 나간 것이다. 남은 식구들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시골에서 홀로 농사를 지으며 자식을 키워야했던 어머니의 삶이 가장 곤고(困苦)했을 것이다. 큰아들을 비롯해 딸 둘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던 어머니는 막내아들만이라도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새로 가정을 꾸린 남편에게 보냈다.

사춘기의 아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가족의 행복을 무너뜨린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되었다. 말썽을 부려 아버지 속을 긁는 것으로 복수했다. 아마 그때 친구를 따라 교회에 다니며 기도하고 어린이 주일학교를 맡아 그들과 뛰어 놀지 않았으면 어떤 극한 상황이 벌어졌을지 모른다. 그런데 그건 껍데기뿐인 평화였다. 아버지에 대한 울분이 가셔지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목사님 댁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아버지가 목사님을 찾아와 아들을 빼앗아갔다고 거칠게 항의했다. 그 여파로 사택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설 데가 없었다. 그때까지 아버지라는 이름대신 ‘그 인간’으로 불렀던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대못을 박아 평생 죄의식 속에서 살게 하기로 작정했다. 그간 살아온 모든 흔적들, 앨범, 사진들, 옷가지를 버렸다. 수면제 70알을 사 모았다. 고향에서 가장 먼 곳인 강원도를 향해 걷고 또 걸었다. 35일 후 월정사에 도착했다. 산내 암자인 지장암을 지나 눈 내리던 부도전 앞에서 약을 입에 넣었다.

월정사 어느 방에서 눈을 떴다. 3일 만에 깨어났다고 했다. 지켜보던 노스님 한 분께서 말씀하셨다. “자네는 다시 태어났네.”

몸과 마음이 상처투성이였던 한 청년의 영혼이 그렇게 다시 깨어났고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던 막다른 길에서 출가했다. 월정사, 해인사, 범어사 등지를 거쳐 도선사에서 은사인 현성 스님 밑에서 행자생활을 했다. 그때 누가 보고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당신 아들 도선사에서 행자하고 있더라’고 전한 모양이다. 나중에 들었다. 그때 어머니는 집 나간 아들의 소식을 듣고 생각했다고 한다. ‘아, 내 아들이 어디 가서 행자라는 여자를 만나 살고 있구나!’

어머니가 아들의 출가를 정확히 안 것은 출가 후 십 수 년 만에 찾아간 고향집에서였을 것이다. 그때까지 어머니를 찾지 않았었다. 돌아보니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 뒤엔 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다. 어머니가 좀 더 현명했더라면 아버지가 집을 떠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출가자는 혈육과 멀리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어머니를 찾지 않았을 것이다.

출가자가 된 어머니는 아들을 보고 아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들어갔다. 마당가 매화나무에서 매실을 따다가 떨어져 허리를 다쳤다고 했다.

“겨우 허리를 펴 자식을 위해 밥상을 차려온 어머니를 보면서 결심했어요. 아픈 몸으로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지 않고는 부처님께도 죄송하고 나의 수행도 도로아미타불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애 최초로 욕심을 냈죠. 절이 하나 생기면 어머니를 모셔야겠다고. 이러한 결심이 국내외 수행처를 찾아다니며 수행했던 개인적인 삶에서 중생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삶으로 전환시켰죠. 결국 어머니가 길을 내주신 거죠.”

청소년기 방황하다 만난 불교
마가 스님에겐 삶의 전환점돼
모친 대한 감사하는 마음 갖자
스님만의 명상브랜드들 탄생도
집나가신 아버지 원망도 ‘훌훌’

떠나오는 자식에게 어머니는 2천만 원을 내놓았다고 한다. 그동안 시장에 나가 나물 팔고 콩 타작해서 십 원, 이십 원 모은 돈을 내놓으면서 어머니가 말씀했다.

“늘 사립문을 열어놓고 너를 기다렸다. 네가 언제고 오면 장가 밑천으로 주려고 모은 돈이야.”

돌아오는 길에 고향 절에 들러 어머니 이름으로 대들보를, 아버지 아름으로 기둥 하나를 시주하면서 그 돈을 다 내놓았다. 정확히 4년 뒤 시골의 조그마한 절을 맡게 돼 그곳에서 어머니를 모실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 스님의 삶이 극적으로 바뀌었다. 어머니를 모실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간 공주 마곡사에서 부부, 가족, 실버세대, 실업자, 기업체 등 다양한 부류의 대상에게 자비명상을 지도해 연인원 3000명을 동참시켰다. 그 결과 마곡사를 템플스테이 대표사찰로 만들었다. 중앙대학교에서 ‘내 마음 바로 보기’ 수업을 시작해서 9년 동안 최고 인기 강사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마음공부를 지도했다. 스님의 브랜드처럼 된 치유와 용서, 기쁨과 행복을 위한 자비명상이 나오고 마곡사 템플스테이가 역동적으로 운영된 데는 ‘어머니’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로 인해 탄생한 스님의 브랜드가 또 하나 있다. “그래도 괜찮아.”

아예 스님이 진행하는 불교방송 프로그램의 이름이 된 이것은 어머니의 팔순 생신 때 탄생되었다. 그날 스님이 온 가족을 초대했다. 집을 나간 지 50년 만에 돌아와 계시던 아버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팍팍하게 살아온 형님 내외, 두 누님들이 모였다. 아버지 없이 살아온 상처 깊은 수십 년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누군가 통곡하며 가족의 폭력성을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집을 나가지 않았더라면 자식들이 이렇게 불행하진 않았을 거라고 원망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느그 아버지는 사람은 치지 않았다.”

한평생 속이 썩어문드러졌을 만한데도 ‘그래도’라며 아버지를 용서한 어머니를 보며, 불평불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아프고 괴롭고 힘들다, 그래도 이만해서 감사하다는 가르침을 배웠다. 그 말 한마디로 인해 어머니와 아버지가 화해되는 것을 보면서 ‘긍정명상, 감사명상’이 태어났다.

내 현실을 수용, 긍정할 때 감사가 나온다. 감사가 행복의 밑그림이다. 감사라는 밑그림이 없으면 영원히 행복이라는 그림은 완성되지 않는다. 스님은 어머니의 ‘그래도’ 한 마디를 통해 깨달았던 이 경험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감사해하지 못해 고통을 당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 긍정명상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지금, 수행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마음속에 응어리진 미움을 용서로 바꾸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108배를 하던 참선을 하던 이것이 되지 않으면 공염불입니다.”

“스님께선 그토록 미워하던 아버지와 어떻게 화해를 하셨나요?

“젊은 시절, 수행에 진전이 없어 힘들 때 곡성 태안사에 계시던 청화 스님을 찾아뵌 적이 있어요. 보자마자 ‘자네는 출가 전에 어떻게 살았나’라고 물으셨는데, 그 물음에 숨이 막히더군요. 스님 곁에 한두 달 있으면서 제 가슴 속에 있던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그대로였다는 것을 알았죠. 그렇게 스님 곁에서 정진하던 어느 날, 한없이 눈물이 쏟아지면서 저도 모르게 ‘아버지, 청화 스님, 부처님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흘러나왔어요. 일주일은 울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수행자로 만들기 위해 고통을 주었다고 생각하니,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고마움으로 바뀌었죠. 그때 나를 먼저 정화하는 것이 수행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청화 스님을 뵈면서 자비라는 것을 실감했는데, 아픔을 치유하고 용서하는 자비명상이 그때부터 태동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 스님은 어머니와 함께 찍은 다큐 한 편을 마무리했다. 점점 쇠약해져 언제 떠나실지 모르는 어머니를 모시고 거의 한 해 동안 전국의 명찰을 다녔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막내아들을 위해 보리 두 말을 공양 올리며 종 불사를 했던 고향의 작은 절에도 다녀왔다. 종 끄트머리에 적혀있던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고 ‘아하, 어머니의 저 보리 두 말의 공양으로 내가 출가했구나’ 생각도 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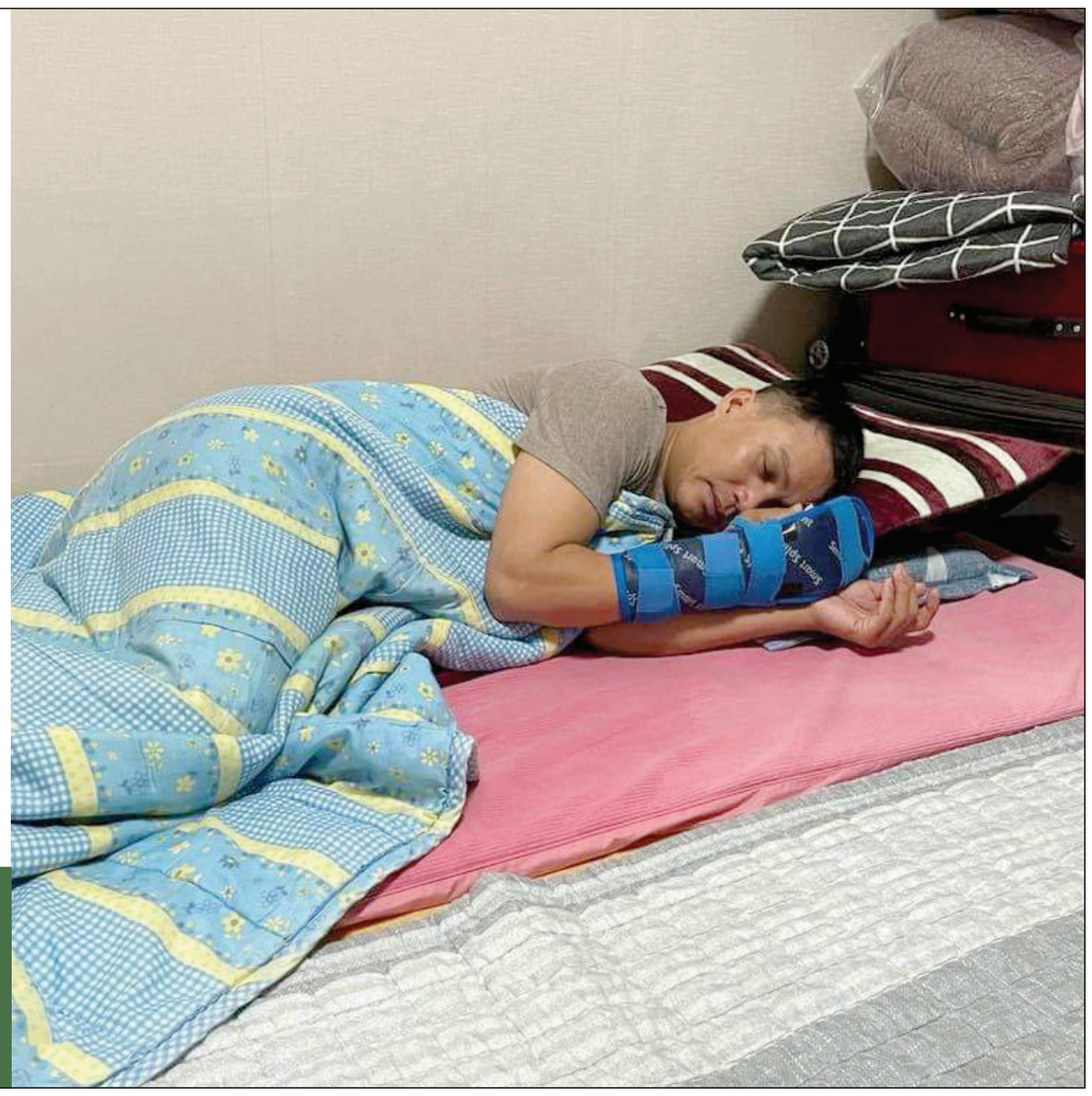
아들 손을 잡고 때로는 등에도 업혔던 스님의 어머니가 그대로 영상에 나올 것이다. 내년 초에 일반에 공개될 거라는 다큐의 마지막 자막은, 스님의 어머니가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이 메시지가 아닐까.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작가〉

일일시호일

손가락 잘려나가는
끔찍했던 순간에 매일이 고통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리우띠안씨 기계에 손가락 4개 잘려
해고 당하고 기숙사서도 쫓겨나…수면제 없이는 잠도 못 이뤄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